

여름방학 무형유산 주말 체험 '풍성'

국립무형유산원, 7월 15일~8월 19일 매주 토요일 가족나들이 · 손공방 프로그램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여름 방학을 맞아 7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승마루에서 가족 및 일반인 대상 무형유산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단위로 무형유산 예능종목을 체험하는 '무형유산 가족나들이'와, 성인 대상의 공예종목 체험 프로그램인 '무형유산 손공방'이 있다.

먼저 '무형유산 가족나들이'는 가족단위로

참여 가능하며, 국가무형유산 예능종목(경기민요, 태권, 통영오광대, 판소리, 임실필봉농악, 북청사자놀음)을 매주 토요일 두 차례(10:00~12:00 또는 13:30~15:30) 체험할 수 있다.

또 '무형유산 손공방'은 개인별(성인)로 참여 가능하며, 국가무형유산 공예종목(완초장, 사기장, 각자장, 염색장, 누비장, 매듭장, 소목장)을 매주 토요일 한 차례(13:00~17:00) 체험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체험행사 전일까지 국립무형유

산원 누리집(www.nihc.go.kr/전승지원/공개행사) 또는 전화(063-280-1656/7)로 하면 된다. 참가비용은 무료다. 다만, '무형유산 손공방'의 재료비는 참가자 부담(3만 원~5만 원)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무형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 함께 누리고 즐기는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 역신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문화재돌봄사업단, 우리 고장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캠페인 전개

정읍 피향정서 관람객 대상 홍보 문화재 보수 · 환경정리 등 시행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전북 서부권 문화재돌봄사업단은 정읍 피향정에서 우리 고장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전북 서부권 문화재돌봄사업단(단장 남해경)은 정읍 피향정에서 우리 고장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단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홍보 및 문화재 보호에 대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읍 피향정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이곳을 찾는 지역민과 관람객들에게 문화재 돌봄사업의 목적과 역할을 알리고, 더불어 센터 내 경미수리팀에서는 문화재 담장 보수와 주변 환경정리 등도 실시했다.

남해경 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재돌봄사업 및 문화재 보존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지정문화재임에도 그 의미가 제대로 알

려지지 못한 우리 고장의 문화재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서부권 문화재돌봄센터는 복권기

금 추진사업으로 모니터링과 경미수리 및 일상관리를 통해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 관광업 재직자 CS · 외국어 교육 1기 수료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도내 관광업 재직자를 위한 CS 및 외국어 교육 1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도내 해외관광객 방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 관광외국어 포함해 고객 응대 서비스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지난 12월부터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도내 관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총 2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한편 7월 3일부터 시작되는 2기 교육은 오는 30일까지 전화(063-230-4212) 또는 네이버 폼(<https://naver.me/GD6GF1b4>) 링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JJ 웹 콘텐츠 공모전' 개최

8월 13일까지 '전라북도의 인문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주제 진행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는 인문콘텐츠대학(안정훈 학장), 사범대학(박기범 학장)과 공동으로 2023 JJ 웹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문학에 대한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웹 콘텐츠 제작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 계발 촉진 및 도전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작년에 처음 시행된 JJ 웹 콘텐츠 공모전은 많은 호응속에 올해 개최가 확정됐다.



공모 주제는 '전라북도의 인문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로, 전국 중·고교 학생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솜뿔, 킷톤, 솟 스토리 3개 부문이며, 신청은 8월 13일까지다.

한편 대상 1팀(200만 원) · 최우수상 3팀(각 50만 원) · 우수상 6팀(각 20만 원) · 입선 10팀(각 10만 원)에는 각각 상장과 부상이 주어지며, 수상작은 추후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될 예정이다.

접수는 2023 JJ 웹 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http://jjwebcontents.goonest.co.kr/>)에서 공모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공모전 홈페이지

작품 접수란에 작품과 신청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063-220-3201~3)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제3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전국 공모

10월 31일까지 접수... 12월 중 당선작 발표 시상금 5000만원 수여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올해로 3회째 고창신재효문학상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창신재효문학상은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일 역량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 · 시상해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문화관광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제3회 고창신재효문학상은 전국 공모를 통해 창작장편소설 분야로 진행되며, 당선작에는 50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예비 작가와 기성작가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최종당선작은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응모주제는 고창의 역사·자연·지리·인물·문화 등을 소재로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판소리 관련 작품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 또는 표절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포함된 작품 등은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시상 후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한다.

'고창신재효문학상'의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과(063-560-2457)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제1회 문학상에는 김해숙 작가의 '금파', 제2회에는 박이선 작가의 '염부'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수상작들은 (주)다산북스를 통해 출간돼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신재효문학상을 통해 문학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위상을 높이고 이와 함께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의 창작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